코로나19

▶ 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적극 권고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겨울철 재유행에 진입, 12월 이후 유행 정점이 예상
-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층은 충분한 대비가 필요
- 기존의 접종과 감염을 통해 얻은 면역은 점차 감소, 신규 변이의 유행으로 기존 면역으로는 예방이 충분하지 않음

감염병 이슈

-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고령층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성에 대해 안내하고, 개별 안내문자와 재난문자를 통해 접종을 독려
- 접종력에 따른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 조정

요양병원·시설 외출·외박 허용 접종기준 조정안

현행	조정안
① 4차 접종자 ② 2차 이상 접종+확진 이력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① 3차·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② 12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 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 대비

감염병 정보

질병관리청 KDCA · 경상남도 GYEONGNAM ·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GNCDC

01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위장염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 증상, 치료, 관리, 예방수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원인

대변-구강 경로가 주된 전파경로이며, 구토물에 의한 비말 감염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식시설에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 의한 사례가 흔합니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

대변-구강 경로를 통한 감염

수도꼭지, 문고리 등 접촉

2. 증상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발열, 권태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30% 이상은 무증상입니다.

3. 치료

수분과 전해질 보충 등의 대증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액 치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관리

환자의 증상 소실 후 48~72시간까지 집단 생활을 피하고 가정에서도 격리 생활이 권유됩니다.

5.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은 익혀서 섭취, 끓인 물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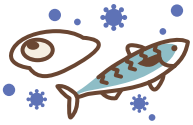
A형 간염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간염입니다. 환경과 위생 상태의 개선과 예방 접종으로 전체적인 발생은 감소하였으나, 간헐적으로 오염된 음식 섭취 등에 의한 집단 발생이 생깁니다.
원인, 증상,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원인

사람이 바이러스의 유일한 숙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대변-구강 경로로 전파되고, 노숙인,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 등이 전파 위험이 높으며, 드물게 헌혈로도 전파됩니다.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

A형간염 환자와 직접 접촉

혈액 또는 성접촉으로 감염

2. 증상

진한 소변이나 황달이 생기기 1~7일 전 전구 증상이 발생합니다. 전구 증상에는 발열, 오한, 두통, 병감, 피로, 식욕부진, 구역, 구토, 체중감소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발열

식욕감퇴

복통·설사

구역·구토

암갈색 소변

황달

3. 6대 예방수칙

공중 위생과 개인 위생을 증진하여 A형 간염 뿐만 아니라 장관감염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1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하지 않기**

02 **조개류 익혀먹고 안전한 물** 마시기

03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04 **20~40대*는 예방접종 받기**

*1980년 이전 출생자는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접종

05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받기

06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자료제공 : 질병관리청 KDCA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GNCDC Gyeongnam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